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OY IN THE WINE CELLAR

가제 : 와인 창고에서 만난 아이

저자 : Katherine Marsh

출판사: Putnam Children'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 ★ 시리아 난민 소년과 평범한 미국 소년, 닷선 벨기에에서 맞닥뜨린 위기와 희망을 찾기 위한 모험
- ★ 에드가 상 수상 작가가 벨기에에서 직접 체험한 테러 공격을 토대로 완성된 생생한 이야기

청소년 미스터리 소설 『The Night Tourist』로 에드가 상을 수상한 작가가 지난 해, 가족들과 함께 벨기에에서 머물던 당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완성했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 브뤼셀에서 발견된 테러리스트 집단의 은신처 등 뜻밖의 사건들에 큰 인상을 받은 작가는 「워싱턴 포스트」에 연재한 에세이와 TV 프로그램 ‘투데이 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때 체험한 일들을 밝힌 바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작가는 살기 위해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 소년과 미국에서 온 평범한 소년이 둘 모두에게 닷선 벨기에에서 나누는 특별한 우정과 모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리아에서 살던 아메드는 2015년 5월, 아빠와 함께 에게 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데려다 줄 고무보트에 올랐다. 다른 난민들도 빼곡히 들어찬 보트는 처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아메드는 이대로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고 말리란 생각에 겁에 질리고, 아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보트 무게를 줄이고 아메드를 살리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고아가 되어버린 아메드는 충격에 빠진 채 홀로 유럽에 도착한다. 넉 달 후, 아메드는 벨기에 브뤼셀의 한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캠프에는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난민들로 가득했다. 아메드는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어느 난민 가족을 만나 다소 안정적으로 지냈지만, 그 작은 행복도 끝이 나고 만다. 그 가족들의 망명 신청이 통과되었고, 홀로 남은 아메드는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겨우 떠나온 시리아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아메드는 무작정 캠프에서 도망친다. 근처 마을을 배회하던 아메드는 대문이 열려 있는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실에서 창고처럼 방치된 와인 저장고를 발견한다. 딱 하룻밤만 머물고 가려던 계획은 다음 날,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는 것

으로 바뀌었다.

맥스는 부모님이 일 때문에 브뤼셀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되면서 함께 낯선 유럽으로 건너왔다. 사사건건 다투기만 하는 엄마아빠는 맥스가 외국어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랑스어를 쓰는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도와줄 유모를 구했다. 프랑스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맥스는 자연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외국 생활은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힘들어지기만 했다. 성적이 바닥을 치고 영 적응하지 못하는 맥스 때문에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던 어느 밤, 맥스는 싸우는 소리를 엿들으러 정원에 나갔다가 지하실에서 인기척을 느낀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벌써 한달 째 숨어사는 아이가 있었다.

맥스는 유모에게서 들은 벨기에의 영웅 이야기를 떠올린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이웃에 살던 어린 유대인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영웅과, 유모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을 거론하며 화를 내던 것을 기억한 맥스는 아메드를 숨겨주기로 결심한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옷이며 담요까지 주면서 아메드를 챙기기 시작한 맥스와 아메드 사이에서는 굳은 신뢰와 우정이 싹튼다. 둘 모두에게 낯선 땅,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만 비슷한 도래에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가 둘을 더욱 끈끈하게 엮어주었다. 그러나 수시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집을 순찰하러 돌아다니는 벨기에 형사가 맥스의 집에 유독 자주 찾아오기 시작해 긴장을 한시도 놓을 수가 없다. 그 와중에, 학교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아메드를 위해 맥스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아메드도 다닐 수 있게 해야겠다는 위험천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아메드는 무사히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둘의 비밀스러운 우정은 언제까지 들키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까? 아무 죄 없이 쫓겨 다니며 생존을 매일 걱정해야 하는 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리고, 영똥한 두 소년들의 모험을 통해 절대 놓을 수 없는 희망을 따뜻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마쉬(Katherine Marsh)는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저널리스트로 일해왔다. 「롤링 스톤(Rolling Stone)」에 글을 기고하고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뉴욕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YA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에드가 상을 수상한 『The Night Tourist』와 『Jepp, Who Defied the Stars』를 발표했다.

제목 : EVERYTHING BEAUTIFUL IS NOT RUINED

가제 : 아름다운 건 망가지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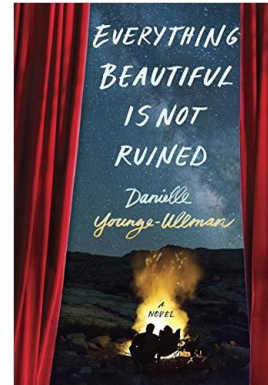
저자 : Danielle Younge-Ullman

출판사: Viking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2월 2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캐나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주인공 때문에 폭소를 터뜨리다가도, 끝에 가서 결국 드러난 주인공의 삶의 깊이 때문에 울고 싶어진다.” – 매디슨 킬렌(Madison Killen), 펭귄 마케팅 팀

★ “처음 읽을 때 웃다가 울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유머와 비극 사이를 섬세하게 오가는 이야기” – 카밀라 셰르벡(Camilla Schierbeck), 덴마크 에디터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긴 한 소녀가 엄마의 지지와 도움을 얻기 위해 어려운 길에 나선다. 오페라 가수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엄마와 함께 또래 친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멋지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온 잉그리드는 어느 날부터 그저 평범한 십대 소녀로 살게 된다. 전혀 평범하지 않았던 삶을 일찍 경험해서일까, 잉그리드는 엄마와 같은 특별한 인생을 꿈꾸기 시작하지만, 엄마는 결사 반대한다. 자신처럼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에게 꿈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잉그리드는 3주간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극기훈련에 참가하겠다고 자진해서 나선다. 그러나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하려고 택한 이 캠프에서 잉그리드는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시련과 마주한다. 세라 자르(Sara Zarr), A. S. 킹(A. S. King)의 계보를 이어 도시 문명이 닿지 않는 자연에 내던져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잉그리드는 ‘최정상 극기캠프’라 불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2년 전, 엄마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딸 엘라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연휴를 맞아 직원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저녁 파티가 열렸던 그 날, 엘라는 잉그리드에게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을 했으며 캠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설명보다 캠프에서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 강렬하고 신비스러웠다고 묘사하는 엘라의 이야기에 엄마는 잉그리드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엘라가 최정상 극기캠프를 다녀온 후 법대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도 엄마의 그런 생각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잉그리드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엄마는 화려한 오페라 가수로 특별한 재능을 인정 받던 사람이었다. 잉그리드의 마음 속에는 늘 엄마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도 컷가에 음악이 들리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밝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 시절은 모두 지나간 일로 묻히고 말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시절의 영광은 엄마가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부터 안개처럼 사라졌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살던 잉그리드는 엄마와 함께 자그마한 마을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누구도 엄마나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는 일반적인 삶에 적응을 해야 했다. 그러나 잉그리드는 음악이 컷가를 떠나지 않았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엄마처럼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저 작은 희망과 아쉬움에 불과하던 그 마음은 있는 힘껏 노력하고 추구하고 싶은 열망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엄마는 잉그리드의 꿈에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인생을 걸고 달려들고 싶은 꿈, 엄마는 잉그리드에게 그 꿈이 바로 무대에 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잉그리드가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잉그리드는 고생길이 뻗은 극기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무조건 꿈을 응원해주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잉그리드는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캠프가 힘들어 봐야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아홉 명의 다른 캠프 참가자들과 대충 넘어가는 법이라곤 없는 무시무시한 인솔교사들을 만난 순간, 잉그리드는 벌써 후회가 밀려왔다. 귀여운 통나무 집에서 모닥불에 마시멜로나 구워먹는 그런 캠프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 직후부터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가방을 탈탈 털리고 나침반이나 책 같은 기본적인 물건들까지 허용 목록에 없다면 압수당한 건 시작에 불과했다. 각자에게 주어진 배낭 속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물건만 허락되고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불일이 급하면 알아서, ‘자연의 순리대로’ 숲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통보와 함께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온다. 게다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는 참가자들 중에 멀쩡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제정신이라고 보기 힘든 괴짜들이며 중독자, 비행청소년 등이 뒤섞인 무리 속에서 잉그리드는 캠프고 뭐고 다 포기하고픈 마음이 솟구친다. 그런데 잠생각을 할 겨를도 없는 고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동안,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잉그리드를 덮친다. 엄마에게 일어난 일들, 엄마의 음악이 일제히 사라져버린 진짜 이유는 잉그리드로 하여금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다. 과연 잉그리드는 몸도 마음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여름, 3주의 시간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다니엘 영 울먼(Danielle Younge-Ullman)은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극예술을 공부하고 10년간 전문 배우로 활동하며 여러 연극과 독립영화에 출연했다. 첫 단편 『Reconciliation』은 맥그로힐에서 YA 독자를 위해 만든 단편 선집 <MODERN MORSELS>에 소개되었으며 이후 『Falling Under』, 『Naughty or Nice』, 『Lora Carlyle's 12-Step Romance』 등의 소설을 발표했다.